

## [2023.08.16] 티앤씨재단 연구공모팀 회의주제

### 1. 연구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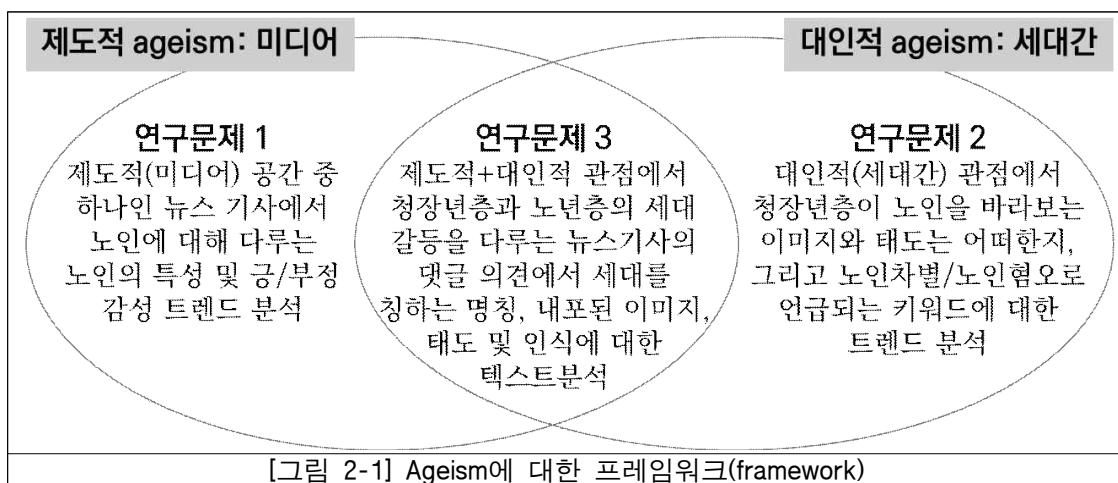
본 연구의 중심주제는 (Core Theme) 2025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가 Ageism의 문제로 세대간 갈등이 팽배하기에, Ageism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현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직시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내 전연령대의 사람들이 Ageism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자 함에 있다.

AS-IS 현안분석	Ageism이 개인과 사회에 나타내고 있는 세대갈등, 노인차별 및 노인혐오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온라인의 빅데이터로서 정량적 분석
TO-BE 방향분석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전연령대의 사람들이 ageism에 대해 공감 및 이해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personal in-depth interview를 통한 정성적 분석

### 2. 연구 내용

#### 1) AS-IS 현안분석의 세부내용

Ageism이 사회 제도적인 현상으로서 발현되는, 제도적 ageism은 대개 미디어, 직장, 법 제도 등으로 볼 수 있고, 대인적 ageism은 우리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 내, 문화권, 세대간 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ageism 내에서도 미디어와 세대 간을 선별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1) 연구문제1: 미디어 뉴스 기사에서의 ageism 양극화 트렌드 분석

- 가설: 국내 뉴스기사에서 노인의 특성 또는 긍정/부정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데이터 기간 및 소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인 2018년부터 현재까

지, 정치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보수/진보/중립 대표 언론사 10여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오마이, 국민, 문화, 세계, 한국, 서울신문 등) 예상

• Ageism을 대표할 키워드 매핑:

- ▶ 일반적(General) 워딩으로 노인, 고령, 시니어
- ▶ 세부적(Specific) 워딩으로 세대갈등, 노인차별, 노인혐오

논의이슈1	Q. 미디어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뉴스 기사에 대한 트렌드 파악을 위해, 기간을 약 5년으로 잡았는데 가능한가?
논의이슈2	Q. 언론사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는 점은 대체로 consensus가 있는 바, 트렌드에 대한 명확한 차이 비교를 위해 보수(조선, 중앙, 동아) vs 진보(한겨레, 경향, 오마이)로 한정하는 것은 어떠한가?
논의이슈3	Q. Ageism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한 재단 측과의 합의 필요

(2) 연구문제2: Ageism으로 인한 차별/혐오로 표현되는 노인 이미지와 태도 트렌드 분석

- 가설: 젊은층이 온라인 상에서 노인차별/혐오로 바라보는 노인의 이미지와 태도는 어떠한지 관련 키워드와 트렌드는 어떠한가?
- 데이터 기간 및 소스: 구글 또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8년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과 미래 5년의 결과를 여러 카테고리 분야를 대상으로 수집 및 비교 분석 예상

논의이슈1	Q. 대체로 국내 검색 포털은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는데, 2개의 채널(구글, 네이버)를 보면서 동시에 트렌드 분석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은 것은 아닌지
논의이슈2	Q. 노인의 이미지와 태도를 살펴보는 키워드는 무엇으로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재단 측과의 합의 필요 - 현재 고려하고 있는 키워드: (neutral / positive) 고령사회, 노인, 고령화,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negative) 노인네, 틀딱, 꼰대, 늙은이, 할배, 할매
논의이슈3	Q. 트렌드분석은 본문과 댓글 분석 없이 제목만 한정되는 것인가? ▶ 트렌드분석에 한정하여 설명하면, 트렌드 분석은 제목 위주의 분석이며 연구문제3(텍스트분석)에서 제목+본문+댓글 포함 ▶ 본문의 경우 객관적인 정보라 긍정 부정 추정이 어려운 점이 존재 ▶ 댓글의 경우 첫 댓글이 부정이면 부정 댓글이 많이 생기는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인양 표시되는 왜곡이 존재하며, 제목이나 본문과 달리 댓글을 포함 할 시 뉴스의 긍정 부정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 존재
논의이슈4	Q. 여러 카테고리 분야의 이미지와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유는?

	<p>▶ “제도적 Ageism”을 위한 연구문제1과 달리 “대인적 Ageism” 관점의 세대간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카테고리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 인식이나 태도를 세분화 하여 트렌드를 분석</p> <p>▶ “제도적 Ageism”이 단방향 이라면 “대인적 Ageism”은 쌍방향 소통</p> <p>▶ 대상 카테고리는 쇼핑, 비즈니스, 건강, 과학, 금융, 스포츠, 교육 등</p> <p>▶ 언론사마다 카테고리에 대한 정의 및 분류, 범위가 상이하고, UI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 때문에 한정적으로 확실한 분야를 논의할 필요</p>
--	--

(3) 연구문제3: Ageism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텍스트 분석★

• 가설: 세대갈등을 다루는 뉴스기사의 댓글의견에서 세대를 칭하는 명칭, 내포된 이미지, 태도나 인식은 세부적으로 어떠한가?

• 데이터 기간 및 소스:

- ▶ 우리나라의 뉴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구글 또는 네이버 예상 최근 1년 기간
- ▶ 대상 기사는 기존 선행연구에 따라 세대간 갈등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 되는 ①고용-노동 및 조직문화, ②사회복지(공공부조, 사회보험 등) 분야로 한정
- ▶ 키워드 매핑으로 “MZ세대”, “기성세대”, “세대갈등” 사용 예상

논의이슈1	Q. 앞서 나온 지적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경우 검색 및 뉴스를 연동해서 확인하는 포털로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는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댓글 내 의견을 파악하는 것은 어떠한가?
논의이슈2	Q. 기간을 1년으로 잡았는데, 뉴스가 얼마나 확산력/파급력이 있는 기사인가에 따라 댓글의 개수가 매우 차이가 날텐데 기사+댓글을 1년으로 보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기간에 대한 부분을 최근 1달 혹은 길어야 6개월 정도로 잡는 것은 어떨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좋을 것)
논의이슈 2-1	<p>Q. 연구문제3의 네이버 1년의 기간은 다소 제한적인 최근 22년 하반기 이후의 트렌드만 볼수 있는 것 아닌가?</p> <p>▶ 연구문제3은 트렌드분석이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파악 목적</p> <p>▶ 과거부터의 갈등 양상이 모두 필요? vs 현재의 갈등 양상이 필요?</p> <p>▶ 기술적으로 기간 확장은 가능하지만, 월별 갈등 양상의 큰 변화가 생기는 포인트가 없거나 계속 다변화하기만 해서 주장할 바가 모호하다면 제외될 가능성 높음</p> <p>▶ 기술적으로 기간을 확장하려면, “세대갈등” 기준 오로지 데이터 파일 생성에만 1일치 38분 이상, 1달치 16시간 이상, 6개월치 5일 이상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분야와 키워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p>
논의이슈3	Q. 세대 간 갈등이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빚어진다는 선행 연구(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Ⅴ-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 따라 <u>고용-노동 및 조직문화에 한정</u> 하려 했으나, 연금이나 공공부조와 관련된 사회복지 분야도 다수 충돌이

	빛어지는 분야로 파악되어 2가지 분야로 확대한 것인데, 분야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 것인지 재단 측과의 협의 필요
논의이슈4	Q. 세대갈등 분석을 위한 키워드에 대해 재단 측과의 협의 필요
추가첨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수집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바 데이터 전처리 엔진, 공부정 분석 엔진, 트렌드 추출 엔진, 고차원 시각화 엔진 등 “데이터를 기계에 학습하여 선생님을 만드는 모델링”을 미리 개발하기 위해 샘플데이터 활용</li> <li>- 모델링 완료 후 샘플 데이터의 분석결과 예시는 9월부터 생성될 듯</li> <li>- 모델링 및 전체 데이터 준비가 완료되면 최종분석들이 수동적으로 진행</li> <li>- 연구팀의 톨이 연구주제 변경에 맞춰 조금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경원 교수: 실질적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 및 성능평가에 집중</li> <li>▶ 허준녕 교수: 기존 치매의 의학적 배경과 예측 성능평가를 위해 참여하게 되었으나, 변경된 주제에 있어 의학분야 전문가로서의 역할보다 데이터 개발자로서 데이터 수집과 시각화를 위한 역할로 확대 및 변경</li> <li>▶ 신수민 교수: 노인복지 분야 전공자로 치매에 관련된 지식 및 질적연구 파트를 위해 참여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노인혐오/노인차별에 대한 전공적 연구 내용 및 질적(연구문제4) 연구의 코디네이터로서 역할 확대</li> </ul> </li> <li>- Raw 데이터 전시 활용을 위한 방향도 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w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여 일반PC에서 열리지 않아 전시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샘플을 전달드리는 방법을 우선 공유</li> </ul> </li> <li>- 외부 자문단에 대해 허준녕 교수님/신수민 교수님 포함하여 협의 필요</li> </ul>

## 2) TO-BE 방향분석의 세부내용

본 연구를 통해 정부나 기업, 시민사회 내 모든 전연령대의 사람들이 ageism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ageism을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단순히 양적인 숫자로 정형화하는 연구가 아닌, 개개인과 소통과 공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질적연구를 함께 병행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설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ageism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노인 그 자체인 **노년층**과 노년세대와 접점이 있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개별화된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고자 한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방대한 이야기들은 세대 간 의견으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재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인천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재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기획안에 대해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인터뷰 대상으로 적합한 후보군을 추려 재단과의 협조 요청을 통해 개인 심층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학계 및 전문가, 정부 및 사회적 경제, NPO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섹터에서 노년층과 청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선별할 예정이며, 개

인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 과정은 영상 및 음성을 녹화/녹취하여 음성 파일은 모두 녹취록으로 전사 후 텍스트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4) **연구문제4:** Ageism에 대해 노년층 및 청장년층(노년과의 접점이 있는) 대상의 in-depth interview를 통해 세대 간 의견 텍스트 분석

● **연구대상 및 방법:** 인터뷰 대상 협조 요청 통해 수행예정

- 학계 및 전문가 등 노년층 대상 인터뷰
- 정부 및 NPO, 시민사회 등 청장년층 대상 인터뷰

<b>논의이슈1</b>	Q. 공공기관 및 NPO, 학계의 경우, 인터뷰와 관련하여 공문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TNC재단 측의 이름으로 작성된 공문 요청
<b>논의이슈2</b>	Q. 인터뷰의 녹취록에 대해 질적연구 혹은 녹취록에 대한 텍스트연구는 사람의 숫자보다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겼는지 + 장시간 나눈 이야기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는 바, 몇 명 정도의 인터뷰를 할 것인가에 대해 재단 측과의 합의 필요
<b>논의이슈3</b>	Q. 연구팀에서 인터뷰이로 고려하는 대상자 외 재단 측에서 추천하고 싶은 인사에 대한 합의 필요

● **인터뷰 대상자 목록:**

#### [노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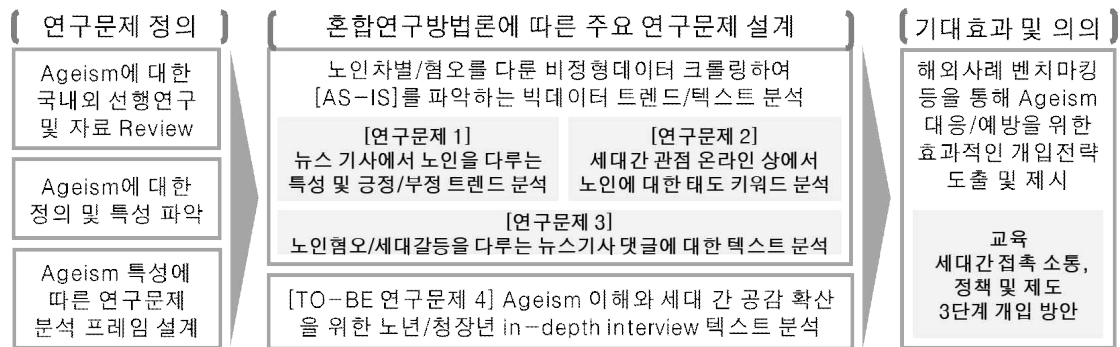
구분	이름	내용
학계	김동배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한국노년학회 19대 회장
NPO	주명룡 협회장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전문가	임춘식 회장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 [청년층]

구분	이름	내용
전문가	희유 관장	서울노인복지센터장
SE	기우진 대표	러블리페이퍼 대표 (폐지 수거 매입 사회적기업)
SE	심현보 대표	(주)아립앤위립 신이어마켓 (폐지 수거 노인 일자리제공)
NPO	최지원 대표	청년보건의료 NGO 사단법인 프리메드 대표

### 3. 연구과정 세부 추진체계

본 연구 과제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과정은 아래 [그림 3-1]와 같다. 우선 ageism이라는 연구 문제에 대한 정의를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파악하고, 혼합연구방법론을 통해 AS-IS와 TO-BE로 나누어 각각의 주요 연구문제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통해 어떻게 ageism을 대응 및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그림 3-1] 연구과정의 추진과정

### 4. 연구 기대효과 및 의의

본 연구과제를 통해 ageism에 대응 및 예방하고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거나 고령화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개입 방안과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노인혐오나 노인차별과 같은 ageism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소셜 빅데이터와 실제 노년층과 청장년층의 이야기를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한다면, 사회적인 공감 확산을 위해 미디어나, 제도 및 정책에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Ageism 대응(예방)을 위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과적인 개입전략 제시

- 전략1: 교육적인 개입
- 전략2: 세대간 접촉 및 소통을 통한 개입
- 전략3: 정책 및 제도를 통한 개입 등